"공공사업이 살렸다"…9월 광주·전남 건설수주 회복세

호남통계청, '9월 산업동향'

전년比광주 134%·전남 72%↑ 민간 부문 부동산 침체로 부진 소비 둔화 대형소매점 매출 감소

지난 9월 광주·전남 지역의 건설 경기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민 간부문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.

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'9월 광주·전 남 산업활동 동향'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건설 수주액은 1천614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 비 133.6% 증가했다.

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공기 업 및 기타 공공단체의 발주가 늘면서 전년 같 은 달보다 675.4% 급증했다. 반면, 민간부문 수 주액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융·보험·서비스 업부진의 영향으로 3.8% 감소했다.

건설 형태별로는 건축부문이 39.1% 증가했다. 학교·병원·관공서 등 공공시설 건축이 확대됐 고 기타 건축 수요도 늘었다. 토목부문은 철도・ 궤도, 조경공사 등 인프라 투자 확대의 영향으 로 835.4% 급증, 공공 인프라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세를 견인했다.

지난 9월 전남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천407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2.2% 증가했다.

공공 부문 수주는 도로 및 발전시설 발주가 늘면서 280.1%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은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1차 금속 산업 부진의 여파로 69 .3% 감소했다. 세부적으로 토목공사는 208.4% 증가했지만 주택 및 공장·창고 건축 수주는 71.1 % 급감하며 대비를 이뤘다.

광공업 생산지수에서는 지역별로 엇갈린 양 상을 보였다.

광주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31.5로 전년 동월 대비 28.2% 증가했다. 자동차와 전기장비, 담배 등 주요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며 지역 산업 성 장세를 이끌었다. 다만 고무·플라스틱 제품, 금 속가공품, 인쇄 및 기록매체 등 일부 제조업 부 문은 감소세를 보였다.

전남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01.6으로 전년 대 비 5.4% 감소했다. 식료품과 고무·플라스틱, 기계 장비 수리 분야는 생산이 늘었으나 1차 금속・운 송장비·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부진했다.

소비 부문은 다소 침체된 흐름을 보였다. 광주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6.8로 전년 대비 8.2% 감소, 백화점은 3.6%, 대형마트 는 13.7% 각각 줄었다. 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 액지수는 75.6으로 전년 대비 21.7% 급락, 음식 료품과 의복, 가전제품 등의 판매 부진이 두드 러졌다. /안태호기자



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2일 서울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'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&국제탑셰프 경진대회'에 토속향토음식이 전시돼 있다.

가을 이사철 9월 지역 전셋값 상승 '전국 최상위'

광주 0.39%·전남 0.29% 올라 각각 2·4위…지난주도 소폭↑

지난 9월 가을 이사철을 맞아 광주·전남 아파 트 전셋값 상승이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인 것으 로나타났다.

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영향으로 아파트 매 매 수요·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 쏠림 현상으로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9월 아파트 전 셋값은 광주 0.39%, 전남 0.29% 각각 올랐다.

특히 광주는 한 달새 서울(0.44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다. 전남은 경북(0.30%)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0 .29%의 상승률을 기록했다.

10월 마지막 주 (27-31일) 전국적 대부분의 아 파트 전세가격도 오른 가운데 광주는 0.05%, 전 남 0.02% 소폭 상승했다.

같은 기간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.07% 하 락했지만, 전남은 0.04% 상승했다.

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.25% 오르며 전주(0 .07%) 대비 상승세가 다시 커졌다. 서울도 0.42% 올라 전주(0.08%) 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10·15대 책 발표 이후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모양새다.

경기·인천과 수도권이 각각 0.15%, 0.30% 올랐 고, 5대 광역시가 0.10%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.01% 떨어졌다.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8곳, 하 락 9곳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.

9월 월간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.14% 떨어진 반면, 전남은 0.36% 올랐다.

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·전남도회 관계자는 "광주·전남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매매 대비 전 세 수요 물량이 많아 가을 이사철인 9월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다"면서 "당분간 지방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 축된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다. /임채만기자

aT, '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' 지정

산업혁신 기반 강화 교육 본격 확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는 2일 "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품산업의 진흥과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'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'으로지정됐다"고 밝혔다.

aT는 그동안 식품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 며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으며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 문인력을 길러왔다.

특히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푸 드테크 분야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

주요 9개 대학(서울대, 포항공대, 전북대 등)에 푸드테크 계약학과 (2년제 석사과정)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. 식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융합 인재 양성 과정이다.

또한 전남대와 건국대를 포함한 9개 대학에 는 식품외식·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예비 창업자와 구직자의 식품산업 진 출을 돕고 있다.

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"이번 지정을 계 기로 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교육을 확대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/안태호기자

광주경총, '은퇴 후 자산관리' 금요조찬 포럼 성료

자산관리 전문가 김동엽 상무 초청 강연

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자산관리 전문가 김동 엽 상무를 초청해 '은퇴 후 자산관리, 절약보다 전략이 필요하다'를 주제로 제1702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.

김 상무는 현재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상 무, 한국연금학회 이사로 금융감독원장상, 금 융투자협회장상을 수상하며 KBS라디오 '성기 하고 내일을 할 일을 걱정하면서도 오늘은 아무

+

영의 경제쇼'와 '통합 뉴스룸 ET'에도 출연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전문가다. 저서로 는 '돈이 돈을 벌어 준다고', '토비의 주식회사' 등 다수가 있다.

강연은 ▲1965년 잔 칼망은 아파트를 매도한 다 ▲곳간형 자산과 우물형 자산 ▲내 평생 월 급은 얼마? ▲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? 등 순으로 진행됐다. 〈사진〉

김상무는 "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



일도하지않는다"로마무리해큰호응을얻었다.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"AI 기반 종합 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노후자산 축적의 핵 심축인 퇴직연금과 상속세, 유언장에 대한 궁금 증도 풀어졌을 것"이라고 말했다. /임채만기자





